

大韓家政學會

第42次總會 및 秋季學術大會

主題：家政學의 再照明

- 일시：1989년 10월 28일(토) 9:30
- 장소：서울대학교 교수회관

大韓家政學會

순서

1. 개회	사회 : 이인자 총무	10:20
2. 국민의례		
3. 개회인사		
4. 제 42 차 정기총회		10:30
• 개회		
• 전 회의록 낭독	정옥분 서기	
• 1989 년 사업 및 경과보고	이인자 총무	
• 1989 년 결산 및 감사보고	유춘희 재무 · 장명옥 감사	
• 1990 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상정	유춘희 재무	
• 폐회		
< 휴식 >		11:20
5. 主題 講演	이기열 고문	11:30
「家政學의 再照明」		
< 점심 >		12:30
6. 分野別 發表 및 討議	사회 : 서병숙 부회장	14:00
• 의류학 - 정홍숙 교수 (중앙대)		
• 식품영양학 - 백희영 교수 (숙명여대)		
• 가정관리학 - 이연숙 교수 (성심여대)		
< 휴식 (다과회) >		14:50
• 아동·가족학 - 박영애 교수 (한남대)		15:10
• 소비자학 - 이기춘 교수 (서울대)		
• 가정교육학 - 이기훈 선생 (문교부)		
7. 폐회		

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家政學 本質의 再照明

李 琦 烈

(延世大學校家政大學名譽教授)
(亞細亞家政學會會長)

I. 緒 言

Home Economics 는 1899 년에서 1908 년간 약 10 회에 걸쳐 미국에서 행하여진 Lake Placid 회의에서 탄생된 용어이며, 그후 國內外에서 “家政學”이라는 명칭으로서 굳게 정착되어 사용되어 왔다.

美國 MIT 출신의 화학도 Ellen H. Richard(1842-1911)은 家政學, 즉 Home Economics 의 창설의 주도 인물로 Lake Placid 會議의 주도권은 물론 家政學 教育의 조직성과 그 운영에 있어서도 탁월한 지도자였다. Ellen Richard 는 Home Economics 의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Home : 家庭은 어린이를 保護하고 養育하는 場所이며, 또 家族에 대한 사례로 이기심을 抑制하는 人間形成의 장소이다. Economics 란: 단순히 金錢만이 아니라, 時間과 努力에 관한 經濟性으로 家庭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家政學의 目的은 家族의 心身の 健全한 發育에 있으며, 이것은 家庭에서야말로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Economics 앞에 Home 을 붙였다.

이 名稱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討議되었고, Economics 보다는 Ecology 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제창도 있다. 또 Richard 부인 스스로도 Galton 의 Eugenics (優生學)에 대하여 Euthenics 優境學을 제창하였다. 卽, Economics 란 The science of controllable environment 로 環境統制의 科學이란 뜻이다.

生態學的 家政學의 概念은 今世紀 初에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80 여년이 지난 오늘날 社會의 움직임과 對應하여 Human Ecology
로 재현되었다.

現在의 家政學은 現在와 未來에 있어서 個人, 家族과 集團 그리고
Community의 利益을 위한 人間과 物質의 資源을 使用하고 發
展시키고 관리하는데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家族의 다른면
과 관련된 科學과 藝術에 관한 學習과 研究 그리고 身體的·經濟
的 社會環境과의 相互交流를 包含한다.

家政學에 대한 定義設定의 풀이의 차이는 그에 對한 使命感에 대한 해석의
차질은 물론, 家政學 教育의 教科內容과 學問의 領域에 관련된
Programme 과 學校 이름 變更에 影響을 주고있다.

1. 그러면 家政學이란 무엇인가? (各國의 家政學 定義)

家政學이 어떤 學問이나? 라는 定義에 관하여는 나라와 나라 사이 혹은 國內의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

1) 美 國

家政學의 發想地; 美國에서는 庶民을 위한 社會의 變化에 민감하게 對應하여도 家政學이 구라파와 같이 絕對主義的 個別科學의 確立을 目的으로 하는 科學論은 취하지 않고 유동적이고, 실리적인 社會의 진보에 적응하는 원리를 초점으로 하는 現代科學論을 分岐點으로 하여 家政學의 目的이 流動的이게 되었다.

Lake Placid Conference(1901년)에 개제된 家政學의 目的은, 다음 世代가 현재보다 높은 水準의 生活을 영위하기 위한 家政學의 促進을 도모한다고 발표되어 있다.

1902년에 發表된 美國의 家政學은 “가정학은 廣義에서 보면, 여러가지 法則, 條件, 原理와 理想에 관하여 追究하는 學問이다. 그것은 一面에서는 人間과 直結한 物理的 環境에 관하여, 또 한편으로는 社會的 存在로서의 人間の 本性에 관하여 追究하고 있기 때문이다. 卽 家政學은 이 兩者의 相互關係를 究明하는 科學이다. 좁은 뜻에서 보면, 家族生活에서 일어나는 實際의 여러 問題들을 푸는 科學이다”라고 家政學의 定義를 말하고 있다.

家政學의 本質은 요컨대 人間과 物質과의 관계는 學問이다.

이와같이 家政學은 初期에 家庭과 地域社會 改善에 焦點을 두었고, 人間의 存在보다는 經濟的 面이 더욱 중시되었다. 그후 家族으로 視點을 돌려 家族의 社會的 存在를 重視하게 되었다.

1959年 美國 家政學會는 家政學의 定義에 대하여 새로이 제정하여 보려고 노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定義를 새로 定立하였다. 즉, “家政學은 ① 家族生活을 위하여 個人을 教育하고, ② 家族에 의해 使用되고 있는 물자와 용도에 대한 개선에 힘쓰고, ③ 人間生活을 充足하게 하여줄 수 있는 사물에 대한 研究와 그 발견을 주관하고, 이를 變化하는 價値觀에 相當하도록 하며, ④ 個人과 家族의 變化와는 要求를 滿足시키는 手段의 發見, 그리고 地域社會, 國家 및 世界情報를 家族生活에 調和, 適應시키는데 目的을 두는 學問이다.”

이 定義는 1960年代에 들어와 그 基本理念은 그대로 두고 단지 人間과 環境과의 關係에서 兩者의 相互作用(Interaction)으로 改訂되었다. 그 이유는 關係의 면에서는 靜的으로 共通性을 추구하는 것에 끝나나, 상호작용에서는 動的으로 양자의 接觸에서 일어나는 상호간의 影響과 變化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즉, 人間과 物質의 相互作用 過程과 그의 效果를 노리는 것이었다.

1972年 第12回 國際家政學會에서 採擇된 것은 定義라기 보다 家政學의 性格과 理念이라는 形式에서 表現된다.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家政學이란 家庭生活를 중심으로 家族의 物質的, 社會的, 經濟的, 心理的, 文化的, 情緒的, 知性的 人間의 諸要求를 充足하는 많은 學問위에 구축된 應用科學이다.”라고 천명하였고 1978년에 學會評議會가 Island에서 열렸을 때 다음의 定義가 採擇되었다.

“家政學은 현재 혹은 장래에 있어서도 人的·物的資源을 個人, 家族, 集合機關(施設)과 地域社會의 利益(福祉)을 增하여, 활용하고 개발하여 生活를 잘 영위해 가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기에는 여러가지 側面에서 볼 수 있는 家族生活과 物的,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관한 人文과 科學에 걸친 學問이다.” 이 定義는 실천적 綜合科學의 성격을 갖는 定義였다.

같은 時代에 Brown과 Paolucci는 家政學은 專門職 養成을 위한 獨自性 있는 學問이며, 이는 任務指向分野(Mission-Oriented Field)로 實踐的 科學으로서의 特性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980年度에 East도 “家政學의 過去, 現在, 未來”의 저서에서 本學問의 本質은 “家庭生活에 理性的인 判斷을 適用하는 學問分野 또는 專門職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國際家政學聯合會(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me Economics)에 의하면 가정학은 “現在의 未來의 個人, 家族, 地域社會의 福祉를 위해서 人的·物的次元을 開發하고 使用하며 관리하는데 관심을 둔 학문이다.”라고 하였다.

生物學的인 意味의 生態學은 20世紀初에는 人間의 社會 行動까지 擴大되어 人間生態學(Human Ecology)라고 사용되어 왔고, 80여

년이 지난 최근에는 특히 社會科學의 여러가지 分野에 학자의 주위를 끌게 되어 왔다. 이것은 일면 移動되어 變하고 있는 世界人口暴發, 公害問題, 窮乏이라는 世界的 規模의 問題를 人間과 環境의 生態學的인 관계로 이해하자는 생각이 높아진 것이다.

Ecology를 체계화하는 경우에는 Ecosystem(생태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었다. 이것은 人間과 環境의 論理的 接點을 確立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가하다. 즉,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의 接點을 物質, 에너지 以外の 새로운 非物質的인 情報라는 概念에서 發見될지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근래에는 “生活의 質”을 근거로 한 學際間的 相互作用과 教育, 研究 그리고 地域 社會奉任 등의 多學際間 方法은 家政學 本質의 새로운 接近法으로 論議되고 있다.

2) Canada 와 英國

Canada 家政學會는 1960年代에 家政學의 定義로 “食·衣·住나 人間關係에 있어서 自然, 社會科學이나 人文科學의 相互關係에 의하여 成立된 學問 領域이며, 家族·地域이나 世界에 걸쳐 그 效果的 適用을 圖謀한다.”라고 定義를 채택하여 왔다.

美國의 LPC會議에서 정한 內容하고는 좀 다르다. 美國의 開拓者가 말한 社會的 存在의 人間으로서의 生活法을 생각한 것보다, Canada는 科學技術을 어떻게 家庭生活에 應用하는가를 表面에 내

놓고 있다. 즉, Domestic Science 는 단순히 料理, 재봉만이 아니라
라는 것을 역설하고 Toronto 大學에서 家政學士 授與의 Curriculum
도 Household Science 로 이름지었었다. 現在 점차로 美國의
家政學 定義로 移行하여 學會誌도 Canadian Home Economics Jour-
nal 로 出刊되고 있다.

英國은 Domestic Science 에서 학회명을 1982년 7월에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Home Economics 로 개명하여, Do-
mestic Science 에서 Home Economics 로 개명한 것이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英國에서는 家政學을 傳統的인 教師養成 教育水準에서 Academic
Acceptability 로 올리는데 대하여 議論이 상당히 성행되어 왔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3) 日 本

日本家政學會에서는 1970년에 國際家政學會의 要請에 應하여 家
政學에 대한 見解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家政學은 家庭生
活을 中心으로 하고 여기에 緊密한 關係가 있는 社會思想에 까지
延長하여, 人間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대하여 人的·物的의 兩面으
로 研究하여 家庭生活의 向上과 더불어 人間開發을 期하고 人類의
幸福增進에 貢獻하는 實證的·實踐的 科學”이라고 하였다.

日本 家政學會에서 편찬된 家政學將來構想 1984 年에서 報告된 家政學 定義는 “家政學은 家庭生活을 中心으로한 人間生活에 있어서의 人的·物的 兩面에서 自然, 社會, 人文의 科學을 基般으로하여 研究하고 生活의 向上과 더불어 人類의 福祉에 貢獻하는 實踐 綜合科學이다.

日本の 家政學 教育者 후지애다 教授는 “21世紀를 向한 우리들은 社會의 變化에 對應한 要求를 충족시키도록 教育의 內容이나 方法을 多面的 綜合的으로 취해가야 한다”고 말하고 日本 家政學會에서는 1984 年度부터 特別委員會를 設置하여 社會의 要求를 찾아서 今後의 家政學 教育의 內容과 課題를 家政學의 全領域을 통해 進行시키고 있다고 한다.

4) 韓 國

韓國의 家政學會는 아직도 家政學의 定義와 本質에 대하여 全面的인 綜合檢討가 없으며, 그동안 매년 열리는 總會의 亞細亞 家政學會를 통하여 家政學 本質의 部分的인 檢討가 이루어졌다.

韓國의 家政學者 장명옥교수는 2000 年度를 위한 家政學 教育에서, 家政學의 使命으로서 專門職으로서의 家政學, 그리고 實踐科學으로서의 家政學을 論하고 家政學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家政學은 家庭生活을 中心으로 하고 이것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대한 物質的, 人間的 兩面으로 研究함으로써 家庭生活 向上을

圖謀하고 人類의 幸福增進에 貢獻하는 實踐科學이다. 따라서 現代 家政學의 使命은 人間의 生態學的 進化過程을 이해하고 意圖의인 適應能力의 開發을 強化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說明하면 家政學의 使命은 個別的인 單位로서, 社會的 制度로서의 家族의 行爲의 體系, 즉 個人的 自我形成을 成熟으로 이끌고 社會的 目標 및 그것을 遂行하기 위한 手段을 研究하고 그것에 대한 批判과 形成에 대하여 啓蒙的이고 協同的으로 參與하도록 이끄는 行爲의 體系를 建設하고 維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使命을 遂行하기 위해서 家政學을 專攻하는 大學에서는 適正한 教科過程 編成이나 改善에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셨다.

또 李仁喜 教授는 家政學 本質과 定義에 對하여, 家政學은 「家族(人間)의 目標達成을 위한 家庭生活의 運營 및 그 方法, 技術 등을 研究하는 綜合科學이며, 規範的 實踐科學」이라고 簡明하게 著者의 問議에 對하여 答하였다.

以上에서 指適한 여러 側面에서의 家政學의 見解를 綜合하면 家政學은 純粹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에도 속하지 않는 實踐科學이라고 歸納하고 있고 學問의 對象은 어디까지나 家庭生活에 두고 있고, “人間과 이의 隣接環境과의 相互作用”에 둔다는 人間生態學的인 思考方法으로 되어 있으며 “生活向上” “開發” “幸福增進”

과 같은 價値的, 政策的 그리고 實踐的인 면이 濃厚한 것이 이 學問의 性格規定의 特色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一部の 學者들은 家政學 本質論에서 主張하고 있는 “生活向上” “幸福增進” 또는 “生活의 質” 등은 主觀的이며, 客觀的으로 事物을 判定하여야 할 科學性이 없다고 반론하고 있지만, 이와같은 主張은 純粹科學과 技術과의 區別이 不分明한 사람들의 論義라고 批判되고 있다.

世界的 危機가 論議되는 오늘날 家庭은 家族을 위한 生命維持體系, 生活保障 體系에서, 즉 衣食住에 대한 慾求와 이들의 消費에서 生成되는 廢棄物과의 關係를 알고, 이것을 보다 큰 生態系(지구)에 대한 人間의 使命을 아는 것이 자신을 보다 넓은 社會人으로서 成長시킬 수 있게되었다. 卽, 地球上의 人類의 生存에 寄與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現代 家政學의 使命은, 한쪽에서는 人類의 知的 遺産이나 生活의 文化的 遺産의 保存에 努力하고, 이의 現代的 意識을 明確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편으로는 變化에 適應하기 위하여, 버리기 어려운 傳統과 決裂을 決心하고 改革을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여간 20세기 후반 제창되었던 人間生態學, 人間資源學 혹은 生物科學 등의 家政學 名稱에서의 “脫家政”의 운동과 家政學의 專門性의 不明確性, 家政學의 獨自的 學問領域에서 混迷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은 世界的으로 波及되고 있다.

근래에는 여러 나라에서 家政學의 哲學究明의 必要性的 소리와 함께 正體危機의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또 世界的으로 高度成長에서 오는 價値觀의 變動은 核家庭에서 獨身父母의 취향까지 움직이고 있고 唯物理論에서 오는 家族觀의 差異 등은 産業家事 技術의 革新과 더불어, 21世紀에는 家政學 存立의 도전까지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家政學에 대한 많은 見解의 差異를 統合하여 보면 家政學은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의 그 어느 것에도 소속 안되는 統合實踐科學으로서 學問의 對象은 어디까지나 家庭生活에 中心軸을 갖고 있다.

2. 오늘의 家政學의 問題

家政學은 家政學의 目的, 對象, 方法 등 學問으로서의 본질적인 問題에 관하여 家政學을 전문으로 하는 研究者들 간에도 반드시 명확한 일치를 모은 것이 아니고, 學問分野와 다른 學問分野와 틀린 가정학의 독자성에 관하여도 확신 있는 회답을 얻을 수가 없다. 더구나 한편에서는 家政大學, 家政學部가 存在하고 家政學이란 이름아래 營養, 衣服, 住宅 등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研究가 행하여지고 있으나, 이것을 통합하여 科學으로서의 체계를 세워야 할 家政學原論의 분야에서도 여러가지 학설이 교차하여, 반드시 이 기대에 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해방 후 40여년간 技術革新과 이에 수반하는 사회구조의 변동으로도 사람들의 生活環境이 크게 변하여, 생활의식과 가치관도 다양하여져 왔다. 즉 종래의 家政學의 존재의식도 새삼스러이 문의 받을 시기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1) 家政學의 混迷

人間的 生存과 基盤인 家庭의 歷史, 構造, 機能 등을 自然科學人文·社會科學의 立場에서의 衣·食·住·兒童保育·管理 등으로 추궁하는 現在의 家政學의 범주이다.

現在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도 심히 分化되어 多樣化되어가고 그 目的이 細分化되고 있다. 새롭게 實證化된 것, 또 새로운 價値의 生産도 많고 따라서 家庭學의 오늘날 課題도 팽대하여져서 그의 취

사 선택도 混迷하여지지 않을 수 없다. 近年에 와서 家政學의 系統化 獨自性을 主張하는 것은 그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래 家政學은 모든 學問系列과 무엇인가에나 관련이 있고 그의 一部를 채택함으로 내용이 깊이지 않은 借用과, 모방의 學問으로 되기 쉬운 危險도 있었다. 家政學이 性格上 高度의 實踐的 應用科學이니까, 他學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社會科學인 家政學은 綜合化하면 할수록 他的 學問分野와의 境界가 一層不明確하여진다. 또 한편 科學이 진보하면 할수록 學問의 새분야도 진전되고 그의 領域은 일층 좁아진다. 만일에 家政學이 統合과 細分化의 두 局面을 가지고 있으면 家庭學과 他 學問과 區別은 무엇에서 찾아야 할 줄 모른다. 이 區分이 무슨 重要性이 있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區分이 모호하고 애매하면 家政學은 유명무실의 可能性이 있다고 일본의 학자가 말하고 있었다. 이 區分은 結論的으로 말하면 家政學의 研究對象과 目的에서 求하여야 한다. 家政學의 對象은 어디까지나 “家庭”이다. 近年에 이 對象이 달라지고 擴大되어 家政學의 混迷를 일으키는 重要한 理由의 하나이라고 본다.

2) 家政學의 對象

對象이 없는 學問은 存在하지 않는다. 家政學은 확실히 家庭이라는 對象이 있고 여기에 人間의 發生이 있고 生存이 있고 生活

이라는 人間의 行爲가 있다.

또 “家庭”은 國家社會의 根源이고 이것에 對應할 수 있는 人間의 培養器이기도 하다. 마치 人體의 機能이 각 細胞自體의 組織의 健全 뿐만 아니라 精神神經 Hormone 酵素등의 통제 조절없이 는 건전하지 않다. 즉 家庭의 健全은 社會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兩者의 均衡이 요구된다. 즉 家庭生活의 向上은 人間幸福에 必要한 것이며, 社會健全에 대한 공헌이 된다. 家政學의 獨自性은 分명한 研究대상과 목적이 있으며 基礎科學과 應用科學의 發展의 根據하여 家庭學도 獨自적으로 發展 內實化될 수 있다.

日本家政學會는 家政學研究對象을 “狹義에서는 家庭의 管理를 意味하며 廣義로는 家庭에 있어서의 生活機能”이라고 말하였다. 1984년에 발표된 일본의 “家政學將來構想 特別委員 分科討議”에서는 많은 討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家庭을 中心으로 한 人間生活에 있어서 사람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관련에서 일어나는 諸問題”라는 意見도 있었고 또 “無理하게 가정학을 가정에다만 限界지면 너무 實用學이 된다.”라는 생각과 “가정을 中心으로 한 상호작용에 쫓아야지, 範圍를 社會의 生活現象으로 넓히면 그 限界가 끝이 없어진다.” 등의 意見이 분분하였다.

이와같이 家政學의 對象은 家庭生活을 中心으로 視野를 두고 다시 周圍로 視野를 넓히자는 생각과 우선 人間生活을 基盤으로하여 그 속에서 社會 및 家庭을 同時적으로 보는 포괄적인 생각도 있다.

家政學의 研究對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家政學의 명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3) 家政學 名稱

“家政學”이라는 명칭은 그 自體가 家庭에 관한 學問, 家庭에 관하여 研究하는 學問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이란 무엇인가 또 그 말은 현재의 학문의 상태를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家政學의 高等教育의 명칭을 Home Economics 에서 딴 이름으로 바꾸는 이유는 ① Visibility 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② 전공분야의 외부의 견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③ 전공 Mission 을 강조하기 위하여, ④ 등록을 증가하기 위하여, ⑤ 대학내의 행정가는 대학내부의 교수들의 압력에 못이겨 등이 있다.

이런 變更의 効果에 대한 公開된 分析은 아직 없지만, 이와같은 變化가 行政部의 지지를 증가시켰고 전공분야 내부와 외부에서의 새로운 Faculty 의 태도, 學部의 남학생 및 비 전공의 등록의 증가 또 그리고 Policy making body 에의 증가된 참여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一時的 現象이었다는 報告의 더불어 變更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이름을 안바꾸고 內實을 기한 變形과 向上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소리도 있다.

일본의 가정학 장래구상위원회에서의 분과토의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는 生活科學이라는 명칭이 좀 지지를 받았지만 贊反의

의견이 나왔지만 生活文化, 生活美學 등의 가정학에 必要한 他分野도 科學이라는 한마디 용어로 소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명칭이 가정학 本質을 표시하는 가장합리적인 명칭이 아니라면 가정학은 그 명칭이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흐름에 따라 그 때의 추세의 기복에 따라 자꾸 변하여 가는 학문인지? 또 “탈가정”이라는 것이 본래 이 학문의 본질을 알고 하는 소리인가 하는 질문의 여운도 있다.

家政學이란, 家庭에서 問題를 받아 그 解決은 家庭으로 歸納시키는 學問이다. 마치 의학에 내과, 외과, 안과 등이 있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 및 발전에 있는 것과 같이 가정학이 衣生活, 食生活, 그리고 兒童學 家族관계 등으로 전공 분류되고 앞으로 社會의 要求에 따라 어떤 분류와 전공세분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學問의 最終 目的은 가족의 幸福 維持와 增進에 있다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人類發展에 공헌하는 데 있다. 한 사람이 짧은 일생에 모든 분야를 다 해결 연구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 중의 한 분야를 전공하고, 그 전공분야에서도 또 細分되어 적은 한소재를 가지고 한평생을 다루게 된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여야 한다.

3. 家政學 本質의 內實을 위한 勸獎

1) 家政學의 專門性과 統合性에 對한 創造力 養成 必要

家政學 各 分野의 研究의 進歩에 따라 專門分野가 細分化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專攻이 獨立 疎外된 分野로의 維持가 아니고 學際間에 또 同一專攻間의 有機的인 相互連關으로 學問은 成就되는 것이며, 家政學分野의 分기된 專攻은 다시 家政學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統合整理되어야 한다. 즉 專門의 틀에만 있지 않고 專門性을 가지면서도 對應性을 가진 教育이 바람직하다. 家政學出身者가 자기의 專門性을 主張하려면 우선 既存의 專門職과 協力하여, 새로운 專門分野를 開發할 수 있는 創造力의 養成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2) 學部學生의 家政學本質에 對한 認識과 使命感

學部 program을 통하여 指導力開發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指導力 program은 學生들이 이미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더욱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考案되어야 한다. 學生들은 學問的인 分野에서 專門的인 指導力 概念을 開發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指導力은 研究의 領域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解決의 경험을 統合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學部學生들의 指導力은 家政學 本質에 對한 理解와 家政學 研究의 開拓者로서의 使命感의 강한 認識이 教育過程을 통하여 必要하다. 學生들이 그들 周圍의 變

化에 대한 인식 뿐만아니라 獨創的이고 熱情的인 그리고 知性을 가질 수 있는 機會는 ① 地域社會의 現地 學習에서 오는 相互作用, ② 學生活動의 奉仕와 communication skill,* ③ 現在 進行되는 研究에 參與, ④ Professional development의 特殊訓練 등이 必要하다.

3) 大學院 Programme의 向上 必要

大學院過程은 매우 學問的이어야 한다. 또한 實際問題의 認識과 그 問題의 解決을 하는 機會를 提供해야 한다. 다가오는 世紀는, 大學의 모든 分野에서 大學院 과정이 세세히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費用과 機會不足 때문이다.

이 分野야, 말로 家政學의 專攻과 細分化에 具體的인 解決을 할 수 있는 科程이다. 많은 家政學 大學院은 概念의 틀과 理論에 대한 단단한 밑바침이 되어야 하며, 統計學과 研究方法에 대한 깊은 理解와 知識과 情報의 分析, 合成에 대한 機會를 주고, 또 實際狀況에 대한 知識適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現在 몇몇 大學院 과정은 專門的인 目的 成就를 위한 學業과정이라기 보다는 과목의 나열처럼 보인다.

大學의 大學院과 研究과정은 밀접하게 連結되어야 한다. 研究과정은 大學院과 學部學生의 質問을 必要로 한다. 大學院 學生은, 研究計劃, 研究基金, 資料蒐集, 分析, 發表等 研究過程에 대한 基本的

修練의 必要가 있다. 研究가 研究로 끝나지 않고 家政學 發展의 實際的 貢獻이 될 수 있는 점도 檢討되었으면 한다.

4) 새로운 研究의 開發 必要

家政學 研究에서, 研究의 質과 量을 높임으로써 強化되어야 한다. 많은 大學의 學部과정은 물론 各 科에서는 教育過程外에 대하여 專門性과 家政學으로의 統合性이 고려되어 研究發達시켜야 한다.

家政學者가 하는 研究는 量보다 質에서 變化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分野보다는 아마도 그리 크게 變化하는 것은 아니다. 理論的 틀의 改善, 計劃과 分析의 高度化, 研究 完成과 그 結果發表時間의 短縮등 이런 것은 家政學 研究의 信賴度를 強化시킨다.

21世紀의 家政學 研究는 垂直的으로 專門化된 研究로부터 複合要因에 대한 統合研究가 家政學의 統合性에 더욱 必要하다. 그리고 우리는 韓國이라는 地域性을 獨自的인 事例開發이 專門知識의 教科內容을 實質化하는데 더욱 必要하다.

II. 結 言

未來의 家政學은 現在의 家政學 分野에 *있는 專門家의 創造的 思考와 實質的 思考에 따라 決定된다. 따라서 現在의 家政學 教育者는 그들의 專攻에 대한 예리한 線을 지키며, 家政學의 目的과 哲學에 專念해서, 未來의 方向에 올바른 計劃과 效果的인 寄與를 해야 할 것이다.

“家政學”, “人間 生態學”, “家族과 消費者學”이라는 명칭들은 과정을 分明히 해준다. 그러나 學問의 과정의 全體的인 모습이나 特殊한 內容은 한 이름으로 좀처럼 受容될 수 없다. 非正期 學生, 그리고 平生教育을 원하는 자들을 受容하기 위한 Program의 多樣한 科學, 文化的, 人種的, 教育的 背景을 가진 學者이지만 家政學의 概念, 目的에 oriented 되어야 한다.

經營構造는 그들이 소속된 大學에 맞아야 한다. 創造的이고, 斷定的인 指導力이 家政學을 위해 要求된다. 구조적 變化는 과거에 서처럼 광범위한 變化보다는 家政學의 強化 혹은 統合을 가져올 것이다.

研究는 家族의 實際的 問題를 向한 것이어야 하며, 學校는 家族과 消費者에게 奉仕하고, 가족을 돕는 자의 역할은 家族의 問題를 解決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研究는 家政學 안에서 基本的

인 研究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大學院 과정은 그 內容이 가장 높은 수준이 될 때까지 세세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더욱 強化되면 하는 것은 學問의 깊이와 就職時 卒業生의 能力이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大韓家政學會는 앞으로의 家政學發展의 韓國的인 地域의 特性과 科學의 傳承을 살리기 위하여 世界의 學問의 흐름에 同參하면서 우리를 위한 범국가적인 “家政學發展未來指向的構想”과 같은 機構設定이 必要하다고 본다.

参 考 文 献

1. Bargeso, S.L., Home-Economics and the Third Wave, J. Home Economics, Vol.2 Fall 10-13, 1983.
2. Brown, M., Home Economics: Proud Past-Promising Future, AHEA Commemorative Lecture, J. Home Economics, Winter, 48-54, 1984.
3. Choi, E.S., K.Y. Lee and C.S. Shim, The History of Korean Home Economics, Yonsei Univ. Press, 1975.
4. East, M., Home Economics, Past, Present, and Future, Allyn and Bacon, Inc., 1980.
5. Fonosch, G., Looking Back: A Home Economist in 1995, J. Home Economics, Fall 27-30, 1980.
6. Henderson, C., Exploring the Future of Home Economics, J. Home Economics, p.2-23-26, 1980.
7. Home Economics-New Directions: A Statement of Philosophy and Objectives, Washington, D.C.: Ame. Home Economics Assoc., p. 4, 1959.
8. Lake Placid Conference on Home Economics. Proceedings of Conferences 1 to 10, 1899-1908. Washington, D.C.: Home Economics Association.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Conference, pp.70-71, 1902.
9. Lippeatt, S.F., and H.I. Brown. Focus and Promise of Home Economics, The Macmillan Co., New York, 1961.

10. Lee, K.Y., Future. Trend of Korean Home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of Home Science,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 1984.
11. Management of Rural Changes in Korea, The Saemaul Undong, Seoul Nat. Univ., Press, 1981.
12. Moon, S., and K.Y. Le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for Korean Home Economics, J. Korean Home Economics, 22:1-18, 1984.
13. Rhee, U., H. Kahng, A Conceptual Study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in Higher Education, J. Korean Home Economics, 21:No.3, 1983.
14. Vincenti, V.B., A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81.
15. Yoon, B. and K. Kim, A Review of Vincenti's History of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J. Korean Home Economics, Vol. 21, No.3, 1983.
16. 家政學將來構想 1984, 日本家政學會編, 光毛館, 198 .
17. 李琦烈, 家政學의 專門性과 領域, 大韓家政學會誌, , pp.155-159, 198 .
18. 松島千代野, 家政學—現在の 關心, 家政科教育, 37(9):30-34,1963.
19. 道善美千代, 渡邊 ミチ, 家政學, 有斐閣雙書, p.27--28, 1982.
20.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창립 20 주년 발표지, 1989.
- 21.

의 류 학 의 재 조 명

중 앙 대 학 교

정 흥 숙

가정학의 한 분야인 의류학은 가정과 사회가 하나의 Ecosystem 속에서 잘 공존하며 융화되어 서로 기여할 수 있음으로써 좀더 수준높은 인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방향과 목표를 두고 있다.

의류학은 조형예술분야, 자연과학분야, 인문사회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가정학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 넓은 범위를 담당하고 있어 한꺼번에 재조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류과학계열, 의류디자인계열, 직물디자인계열, 복식사계열, 의류사회학계열 등으로 나누어 재조명 해 보기로 한다.

1. 의류과학계열

의류과학계열은 그 성격상 의류재료학분야, 의류정리학분야, 의류위생학분야로 나뉘어 진다.

의류재료학분야에서는 섬유의 성능문제를 다룬 의류재료의 형태적 성능, 기계적성능, 내구적성능, 기본적인 가공, 염료구성, 직조원리등에 관한 연구와 강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에 학계와 섬유관련연구소에서 새로운 가공법을 많이 개발 하였으나 좀더 실용적인 면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의류재료학분야에서 중요시 해야할 또 다른 과제는 새로운 소재개발로서 옷감뿐만이 아니라 저렴한 고품질 좋은 부자재개발이다.

또한 개발된 신소재를 의복에 위생적·관리적 편의에 맞도록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한편 새로운 세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제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의류재료학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의류위생학분야에서는 의복의 착용과 관련된 인체생리에 관한 연구와 함께 쾌적한 의복환경을 위한 의복구성에 대하여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앞서 시급한것은 한국인을 기준으로 한 국민건강과 관련된 위생학적 기초자료조사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2. 의류 DESIGN 계열

의류디자인계열은 Fashion Illustration 분야, Flat, Pattern Design 분야, Draping Design 분야, Clothing Construction 분야를 포함한다.

지난 몇년간 학교안에서나 학교밖에서 실시된 전시회에서 보여진 Fashion Illustration 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표현하고자 하는 Fashion Illustration 의 대상목표물이 의상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style 이나 얼굴, 손, 발 표현을 지나치게 강조한 Fashion Illustration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옷감의 재질별, drawing 도구별, image 화, 또는 생략된 한 두개의 선만으로 나타내는 Art Drawing 등 예술적으로 의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과 창작력 및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대복 뿐만이 아니라 복식사적인 측면과 민족복적인 측면에서의 Fashion Illustration Curriculum도 필요하다. 의상을 인체에 입혀서 동작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Fashion Illustration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진출해서 Fashion Designer 실무를 볼 때에는 도식화 Drawing이 가장 많이 필요하므로 도식화 Drawing을 저학년에서 교육시켜야함을 덧붙인다.

머릿속의 design을 Fashion Sketch나 Fashion Illustration으로 옮겨 본 후에 옷본을 만드는 것이 다음 순서이다. 옷본을 만드는 방법은 Flat Pattern Making과 Draping Design의 두가지 기법이 있다. Draping Design은 muslin으로 dress form에 pin work을 함으로써 옷본을 만들거나 옷감을 직접 dress form에 drape시켜 pin work을 함으로써 옷본 만드는 과정을 생략시키고 dress form 위에서 cutting까지 끝내는 방법임으로 소비시간이 절약되고 복잡한 design이라도 정확한 fitting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학계나 의류산업체에서는 이미 30여년전 부터 Draping Design을 실시하고 있으며 Fashion Designer을 뽑을때 필수실기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짧은 시간안에 two-piece suit을 dress form위에 Draping Design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Draping

Design Curriculum 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Flat Pattern Design 이나 Draping Design 을 통해 만들어진 옷본은 fashion 경향에 맞게 빠른 속도로 Commercial Pattern 화 시켜서 일반 주부들이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동하여 현실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Clothing Construction 분야에서는 인체계측, 체형연구, 치수 설정, Computer 에 의한 원형연구,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 의복에 관한 연구, 봉제연구등이 교육되어 왔다.

인체계측은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국민체형의 변화에 부응하여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 10 년에 한번씩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학계는 국가의 재정적·인력적인 도움을 얻어 적극적인 계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miss, mrs. size 구별, 비만형의 아동과 부인을 위한 half size 및 키가 작은 petit size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능률적인 봉제를 위해 의류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기재를 학계에서도 구입하여 사용법을 교육시키는 한편 손공(hand craft-manship)이 많이 간것을 선호하는 high touch 취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고전의상이나 고전예술품등으로 부터 치수나 누빔, 고급손바느질등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상 design 이나 색채배합등을 위해 Computer 사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년간 졸업작품발표나 의상 Design Contest 에서 흔히 보여지는 경향은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는 Wearable Wear 보다

미술품으로 감상밖에 할 수 없는 Art-to-wear 의 비중이 훨씬 큰 것이다. 그렇다고 Art-to-wear 를 경시해서는 안되는 것이 Art-to-wear 를 통해 line 이나 silhouette, color, material 등의 design motive 나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TEXTILE DESIGN 계열

Textile Design 계열은 Textile Weaving Design 분야와 Textile Print Design 분야로 나누어 진다.

그동안 대학교의 Textile Design 계열에서 목표로 한 작품의 item 은 주로 tapestry 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창의적인 방법의 Textile Weaving Design 이나 Textile Printing Design 으로 창출된 직물이 Art-to-wear 뿐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의상 제작에도 실제 사용되도록 유도 되어야겠다.

특히 섬유산출국인 우리나라의 Textile Print Design 산업이 외국의 것을 그대로 copy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을 감안하여 대학교의 의류학과에서는 Textile Print Design 실습실을 강화해야 하며 여러가지 직물에 따른 여러가지 Print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Computer 를 이용한 색채배합이나 색채조작기 (Color Stimulator) 를 이용한 색채설계지도등이 필요하다.

4. 복식사

복식사(History of Clothing) 계열은 한국 복식사분야, 동양

복식사분야, 서양복식사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88 세계올림픽대회를 치루면서 한국복식은 아름다운 복식으로 세계에 알려졌고 한국복식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한층 심화되었다.

그동안 한국고전복식 연구는 문헌자료나 실물자료를 대상으로 복식의 종목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동양복식사는 우리나라의 인접국인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소수민족의 복식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우리나라 복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복식과 일본복식에 대한 연구외에 아시아의 여러 소수민족의 복식은 서양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문헌 및 실물자료가 빈곤하고 그들의 복식미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다.

서양복식사는 복식의 종목별 변천과정 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술양식 등의 문화적인 측면, 특히 예술양식사적인 측면에서 미의식에 관한 고찰이 많이 진행 되었다.

앞으로는 한국복식사, 동양복식사, 서양복식사분야 모두가 생활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한편 복식연구자료로 문헌이나 유물, 미술작품등의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양식상의 차이를 먼저 고찰하여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또한 건축사, 조각사, 회화사, 공예사, 사상사, 인류사, 고고학등의 복식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학문을 연구 함으로써 인접학문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복식연구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식사를 편의에 의하여 한국복식사, 동양복식사, 서양복식사의 세

분야로 지역구분을 하고 있지만 먼저 세분야의 복식변천과정을 이해한 후에 기본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특정지역을 연구하고 아울러 동서양 복식 및 생활문화사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재조명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의류사회학 계열

의류사회학계열은 Fashion Marketing 분야와 복식사회심리학 (Social, Economic, Cultural, Aesthetic & Psychological Aspect of Clothing) 분야로 구성된다.

Fashion Marketing 은 섬유산업, 직물산업, 의상·부자재·Accessory 제조업 및 판매업, fashion 관계의 출판업, 교육사업등의 총체적인 산업체제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판매활동의류상품의 유통, 분배, 판매과정, 선전, 포장등의 의류경영활동 및 소비자행동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재 각 대학교의 Fashion Marketing 강의와 연구는 Fashion Marketing 에 관한 전반적인 개론 고찰과 의류산업의 실태조사와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생산계획 및 방법, 가격정책, 유통구조개선, 판매전략 광고효과등에 대한 실험적연구는 부진한 상태이다.

의류업계는 대부분 위탁판매정책 (Franchise System) 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재고부담율이 높고 그 위험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산정되므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학계

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뿐 아니라 구매 후의 물질적 정신적 형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구조개선등을 실현할 인구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극대화시키면서 최대의 이윤이 아닌 작정이윤을 산출할 수 있는 올바른 자료를 학계에 제공해 줄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고 싶다.

학계에서는 Fashion Marketing 분야에 「기성복 분석」과 같은 Curriculum 을 만들어 기성복을 선택·조사하여 신랄하게 분석·평가한 후 그 자료를 산업체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산학협동의 Seminar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의류학과와 연계된 직장개척을 위하여 Fashion Marketing 의 근접학과목으로써 Fashion Display 와 같은 Curriculum 을 open 해 줄 것을 제시한다.

의류사회계열중의 복식사회심리분야는 지난 5, 6년 사이에 의류학 전체의 어느 분야보다 강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반적인 연구는 폭넓게 개괄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으며 좀 더 전문적이면서 깊이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앞으로 조명해야 할 몇가지 사항은 첫째 측정도구의 개발로써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작업이다. 국내 학자로는 1980년 이인자 교수가 개발한 「의상의 흥미도 측정을 위한 검사지」외에는 별로 측정도구가 없어서 외국의 학자들이 구성해 놓은 질문항목들을 여기저기에서 선정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질문항목이 우리나라 환경과 국민에게 적당한가등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분명히 가려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조명해야 할것은 연구방법에 있어서 설문지이외의 1:1의 실물접견이나 drawing, slide, 사진 video 화면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국내외 학자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측면의 연구를 되풀이 하지말고 보다 새로운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대상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하여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실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자료분석에 있어서 통계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통계는 연구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통계자료분석에 대한 결과의 해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조명해야 할 초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병원요법으로서의 fashion therapy 연구이다. 또한 비정상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실험적이고 적극적인 Fashion Therapy 연구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의류학은 개인과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깊이있는 연구의 범위를 크게 넓히도록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식생활 분야의 제조명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백 희 영

가정대학의 식생활 분야를 담당하는 학과는 대개 식품영양학과로 명명되어 있으나, 더러는 식생활과, 영양학과, 식품과학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왜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해답은 우리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신체기능(활동, 성장, 생식등)이 원활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40여가지의 화학물질(죽, 영양소)들을 음식을 통하여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생활에 관련된 학문분야는 영양학과 식품학으로 크게 구분할수 있다. 식품학은 식품의 성분, 성질, 가공이나 조리예 의한 변화등 식품에 대하여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반면, 영양학은 우리가 신체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생활이 적합한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식품학과 영양학은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그 대상이 다르므로 현재와 같이 학문의 세분화가 심한 시대에서는 양쪽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두 분야의 지식을 서로 조화시키지 않고서는 식품영양학을 식생활에 대한 실천종합 과학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우므로 한 학과에서 두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식생활분야에 관한 토의는 토론자의 형편상 영양학을 중심으로 한 토의가 되겠으며 식품학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에도 영양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측면일 수 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 본 토의는 먼저 식품영양학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최근의 연구동향과 우리의 당면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의 연구들

비타민 A 의 결핍증인 야맹증과 비타민 C 결핍증인 괴혈병에 대한 기록이 BC 1500년 경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을 보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건강과 식생활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괴혈병은

15-16C 탐험시대에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 사이에 만연하여 주요사망원인이 되어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영양학과 관련한 과학적인 연구는 18C 유럽의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Priestley 와 Lavoisier 는 산소를 발견하고 물질의 연소에 대한 연구를 한 후 '식품이 인체에 들어간 후 산소에 의하여 산화되며 이것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후 Liebig, Mulder, Chevreul 등 여러학자들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이 인체의 주요 구성 원소임을 알아내었고 체내에서 연소되어 에너지를 내는 것은 식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등이며 특히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인체의 중요한 구성성분이라고 하였다. 임상적으로는 괴혈병, 구루병등이 문제시되어 18 C 중엽 항해선의 선장인 Lind, Cook 등은 자기 선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레몬 주스나 신선한 야채, 과일을 섭취하면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았다.

실험 동물의 이용

20C 들어서 작은 실험동물을 이용함으로써 영양학 연구는 큰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영양소의 결핍에 민감한 동물을 개발, 사육 하면서 3대 영양소 이외에도 많은 영양소들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비타민의 발견, 분리, 구조규명, 합성등이 차례로 이루어져 1940년대까지 모든 비타민이 발견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시기를 영양학이 과학계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총집중시켰던 영양학의 전성시대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 시기의 연구에서 실험동물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Cook 의 실험후 150여년간 비타민 C에 대한 연구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05년경 guinea pig 에서 괴혈병의 증상이 관찰된후 연구가 급진전하여 1920-30 년경 ascorbic acid 가 발견되었으며 Szent-Gyorgi 는 후일 그 공적으로 노벨상을 받게된다.

최근의 연구동향

현재까지 3대 영양소 이외에 13종의 비타민, 20여종의 무기질이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영양소를 발견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영양소들의 발견이 거의 끝난후 오늘날까지 영양학 연구는 영양소의 발견과 결핍증상의 예방이라는 초기의 연구내용에서 크게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최근의 여러가지 학문적, 사회적 변화의 영향도 크다고 하겠다.

1. 과학, 기술의 발달. 현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전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생물학, 특히 생화학의 발달로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의 영양소 기능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새로운 실험설비와 기기의 발달로 극미량의 영양소도 검출가능하게 되었다.

2. 새로운 연구방법의 이용. 연구방향의 전환은 새로운 연구방법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개체(whole animal)를 이용한 연구뿐 아니라 기관, 조직, 세포, 나아가서 세포 하부구조를 이용한 연구모델을 개발하여, 영양소의 생화학 기능을 연구할 수 있으며, 역학적 연구방법, 분자 생물학적 연구방법등 새로운 연구방법의 응용등이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3. 질병양상의 변화. 옛날에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질병들이 급성 전염병이었으나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향상은 이러한 질병들을 퇴치하였다. 현대인의 건강문제는 주로 심장병, 고혈압, 비만, 암등 만성 질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 질병들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많은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4. 생활양상의 변화. 예전에는 식량 확보 방법이 자급자족적이었으나 산업사회로의 변천, 인구증가등은 식량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분리시켜 식품의 공급 및 유통문제가 대두되었다. 식량의 증산, 가공, 저장등이 중요시되면서 첨가물, 식품의 오염, 변질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간의 문화 교류와 교역의 증가로 새로운 식품과 조리방법이 소개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정 생활양식의 변화로 외식이나 편이식품의 사용이 증가하는등 식생활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식품영양학은 과거 어느때보다 인류의 복지를 위해 그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및 앞으로의 식품영양학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몇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양소 기능의 생화학적 규명. 영양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영양소의 발견등이 초기의 관심사였던 것에 비하여 영양소들의 생체내에서 수행하는 기능 및 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각 영양소의 필요성을 알려줄 뿐 아니라 영양소의 필요량 추정, 영양상태 평가등에 귀중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수 있다.

2. 영양과 만성질병과의 관계. 이 분야는 현재 가장 연구가 활발한 분야라고 하겠다. 만성질병들은 발병기간이 길고 원인이 일반적으로 복합적이므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분야에 따라서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3. 영양소와 다른 요인과의 관계. 영양소는 식품내에 다른 영양소 및 다른 성분들과 함께 존재하므로 영양소 단독으로 섭취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들 성분들은 영양소의 이용이나 기능을 도울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 식품내의 다른 성분들(첨가물, 오염물질 포함), 알콜이나 약품섭취가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4. 실생활에의 응용. 영양학의 본질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실생활에 대한 학문이므로 과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가정단위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단위에서의 시도를 포함한다. 각국에서는 영양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영양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영양권장량이나 식사지침의 제정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주요 과제

1. 연구여건의 확립. 식품영양학 분야의 연구는 다양한 모델과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설비를 확충하고 연구인력의 고급화로 연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수들이 연구에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도 필요하다.

2. 기초자료의 정비. 각 연구자가 할 수있는 연구의 범위와 내용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생산적인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충분하고 신뢰할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식품성분표는 모든 영양학과 식품학 연구에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분표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하여 개인의 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3. 우리나라 영양문제의 파악.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을 파악하고

영양학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이섭취조사와 영양상태를 좀더 정확히 하도록 국민영양조사를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4. 식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식생활은 인간의 건강, 생활, 나아가서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식품영양학 연구는 학문적인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위해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학계도 사회적인 기여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riggs GM, Calloway DH. Nutrition and physical fitness. (10th ed.) W.B. Saunders Company, 1979.
- Carpenter K. The use of animals in nutritional research. The Daily Californian, Feb. 10, 1989.
- Diet and health: Scientific concepts and principles. Nutr Rev 45:276-287, 1987.
- Dietary guidelines: International and national perspectives. Nutr Rev 46:236-240, 1988.
- Hegsted DM. Nutrition: The changing scene. Nutr Rev 43:357-367, 1985
- Munro HN. Back to basics: An evolutionary odyssey with reflections on the nutrition research of tomorrow. Ann Rev Nutr 6:1-12, 1986.
- Nutritional epidemiology. Dairy Council Digest Vol 53, No 4, 1982.
- Rucker R, Tinker D. The role of nutrition in gene expression: A fertile field for the application of molecular biology. J Nutr 116: 177-189, 1986.

가정학의 이미지 개선과 가정관리 분야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성심여자대학 가정관리학과

이 언 숙

이 기열 교수님의 [가정학 본질의 재조명]이라는 논문은 각국에 있어서의 가정학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셨고, 가정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여 주신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우선 명칭 변경과 관련된 가정학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가정학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기에 앞서 가정학의 전문가로서 가정학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대학, 산업체 및 사회 전반에서 가지고 있는 가정학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열 교수의 논문 제 3장에서 지적하신 네가지 권장사항이 이를 위한 아주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① 가정학자들이 개인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각종 대충매체, 자원봉사 및 기타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가정학자들이 하고있는 일이나, 가정학에서 축적된 다양한 지식 및 자료에 대하여 일반 사회인을 교육하고, ③ 정부차원에서 가정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④ 국가수준에서 활동하거나 결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⑤ 취업, 교육,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정에 있어서, 가정학 분야의 참여와 참여하고 있는 기존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 등을 통하여 달성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전공으로 부과된 교과과정은 윤리적-도덕적 추리력, 논리적 사고력, 불확실성과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미래지향적 사고력과 미래를 위한 계획능력, 폭넓은 사회적 관점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능력, 효율적인 자원 사용 능력, 그리고 창의적 학습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전산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기술을 생활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는 능력 등과 같이 사회의 기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정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개선하여 우수한 학생이 가정학을 전공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가정과 분야의 격상, 교과서 및 교재개발, 우수한 교사 양성, 가정학 전공자의 홍보활동, 대학 진학 시험에서 가정 과목의 위치 개선 등의 노력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정과 교육 분야 토본자께서 상세한 언급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넷째, 가정학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하여야 합니다. 기존 분야 이외에 가정학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의 개척,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로의 취업확대 및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각종 자격증의 종류의 다양화,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 편성 등이 이를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공공 정책 분야에의 가정학자의 참여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가정학에 대한 철학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가정대학의 각 전공 분야 별 학제적 연구,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가정학의 본질, 내용, 학문적 특성, 탐구 방법, 연구대상, 전문성 및 사회적 기여 등을 규명하여 가정학의 독자성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학 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 전문가가 지도력을 가지고 가정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련, 연구 발표회, 세미나 등에의 참가 기회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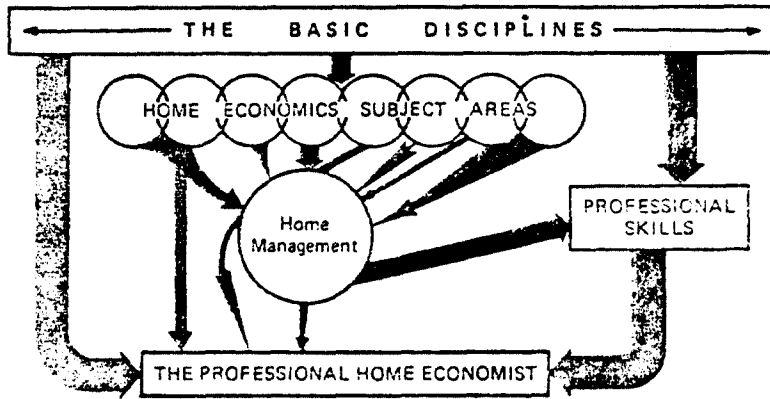
우리들이 우리가 속한 학문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가정학이란 용어 사용을 회피한다든지, 각 전문 분야와 가정학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든지, 가정학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가정학 동창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때, 가정학의 명칭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습니다. 가정학 명칭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명칭이 제안되었으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가가 공동으로 농의를 하여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가정학의 전통성과 효율적으로 관련시켜야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맡은 가정관리 분야에 대하여 학과로서의 가정 관리학과와 가정 관리학과 내의 가정관리 (가정 경영)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과로서의 가정 관리학과는 성격상 의부부와 식부부를 제외한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 전 가정학 교육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 관리학과와 명칭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의부직물학과나 식부영양학과와 명칭과는 달리, 과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 관리학과에는, 학교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거 분야, 가족 분야, 아동 분야, 가정 관리분야(협의), 및 가정 경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 분야는 각기 해당 분야에 고유한 사실, 원리, 및 지식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탐구 방법이 각기 다르며, 연구, 설명, 예측하는 방법도 또한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학문적 발전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 및 개별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가정 관리학과와 교육 과정은 복잡하고 분화의 정도가 낮아 전문인의 양성에 장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전문성의 결여는 학생들의 졸업 후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가정 관리학과와 동일성 및 귀속성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 대상 및 학문의 특성에 따라 학과의 분리, 둘째, 현행 가정관리학과에 전공제도 (예, 주거전공, 아동전공, 가족전공, 가정경영전공 등)를 두고, 해당전공 분야의 교육을 강화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해 내는 방안, 셋째, 학교 사정에 맞게 가정관리 학과의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전공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의 명칭 변경을 변경할 때는 다음의 몇가지 점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변경된 학과의 명칭은 현존하는 각 전공 분야를 대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과의 명칭 때문에 현존하는 전공분야가 축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취업과의 연결이 잘 되도록 학과 명칭은 시대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명칭이 변경되어도 가정관리학과 졸업생에게 주어졌던 자격증 (예, 중등교사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학과 전공 특성에 맞는 다른 자격증 (예, 사회교육 전문요원, 농촌생활 지도사, 소비자 상담사, 판매 관리사 등)을 취득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관리학과내의 한 전공 분야로서의 가정관리 (가정경영) 전공의 특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관리 전공 분야의 특성을 가정관리학과와 근본적 특성이 있고, 가정관리학과에서 다루는 여러 분야의 개념들을 묶어주는 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점의 역할을 하는 가정관리 분야와 기타 전공 과목의 관련성은 East (1980)가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그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관리학과의 학과 명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분야의 독자성 때문에 계속 존재하여야 하며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가정관리 분야(협의)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가족에 맞는 자원관리 모델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미국 학자들이 개발한 system model (Deacon & Firebaugh; Gross, Crandall, & Knoll)이나 ecosystem model (Paolucci & Hall) 등이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 자원관리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고찰해보아야 합니다. 모델의 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다양한 자원관리와 가족 상황에서 모델의 각 요소들의 설명력이나 예측력을 조사해서, 모델의 요소나 요소 사이의 관련성을 재정립 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자원 관리 과정의 기초적인 요소이며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요소인 가치, 의사결정, 의사소통에 관하여 측정 방법, 영향을 미치는 요소, 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치의 성립 과정이나 가치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규명이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정의하는 문제,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족의 적응력, 응집력, 기능력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한 고찰이 요구됩니다.

셋째, 관리의 산출요소인 생활 만족도, 생활의 질의 향상,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 가정의 생산 능력의 증진 등에 투입과 관리과정의 요소나 사고과정이 어떻게 기여하며, 이 산출 요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가정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생활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할 때, 관리의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규명은 가정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원에 관한 개념 정의를 전문 분야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자원의 특성, 측정방법,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 자원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관한 규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한 오늘날에 있어서 자원 사용 방안에 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 사용에 관한 가능한 사회적 대안의 인식, 생활수준을 낮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원 사용의 다른 방안, 가정 생산 활동 기술의 향상 방안, 값비싼 재화나 용역의 공동 사용 방안 등은 자원의 희소성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ttig

와 Everett (1982)는 자원의 희소성 시대에 가족이 적용하는 한 방안으로 "doing more with less"의 생활 양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와 용역의 가정 생산 활동에 강조를 두는 양식으로 가족의 생활 표준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전을 시간, 신체 에너지, 및 기술 등으로 대체시키는 적응 방식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가치 변화로 낭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이의 예로써 서비스의 교환, 공공 자원의 이용, recycling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생산활동 기술의 향상이 어느 시대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은 가정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가정 생산활동의 가치 인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법률에 반영되거나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의 특성에 따라 자원 관리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며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가정생활 주기, 사회 계층, 가족 형태 (핵심부부 가족, 재혼 가족, 맞벌이 부부 가족, 장애자가 있는 가족, 공동 가족)에 따라 자원이나 요구가 어떻게 달라지며 이러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가족 자원 관리와 사회적 환경 및 자연 환경과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는 생태학적 관점이 강조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 사회 문화적 환경의 특성이 가족의 자원관리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한 반대로 가족의 행동이 이러한 사회적 체계에 주는 영향, 즉, 사회 체계와 가족 체계간의 상호 의존성 규명을 위한 학제적 공동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연 환경 자원 (예; 공기, 토지, 물, 에너지, 식량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원의 희소성에 가족이 어떻게 적응해 가는 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의식과 생활 양식 선택의 중요성, 자연 자원의 사용, 분배, 및 관리 문제 (예; 수자원의 희소성, 오염, 분배 문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토지의 손실, 제한된 석유 자원의 분배), 인구 문제 등도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가족 자원관리에 관한 지식의 전달방법에 대한 교육학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때 관리의 주요 개념, 개념간의 상호관계, 원칙들이 어떠한 언어로 전환될 수 있으며, 어떤 방안이 교육의 효율성에 기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학 혹은 가정관리학과내의 인접 분야와의 상호 교류적 연구나 공동 연구, 다른 학문간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관리의 개념은 확장될 수 있고, 이 분야가 여러 전공 분야를 묶어줄 수 있는 개념적 틀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횡단적 연구 방법과 아울러 종단적인 연구 방법의 도입도 필요한데 종단적 연구는 개인이 생애를 통하여 관리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나 행동을 어떻게 발달 시키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리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교육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消費者學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李 基 春

I. 序言

20세기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학기술의 고도화, 정치 사회의 변혁에 따라 인간의 의식과 생활양식(life style)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 시기이다. 즉 끝목할만한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산업화를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공급, 대량소비를 초래했으며 소비자문제가 확대되고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인간을 소비생활의 측면에서 포착한 개념인 消費者가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학문적으로는 소비자관련영역이 '消費者學' (Consumer Science)이라는 명칭으로 대두되었다(이기춘, 1988).

본고에서는 소비자학의 개념과 영역,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성격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와 행정적인 근거지가 가정학에 있음을 밝히며, 아울러 家政學의 定義와 目的에 부합해서 소비자학이 학문적 위상의 정립과 사회적 기여라는 두가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消費者學의 學問的 特性和 領域

지금까지 소비자관련영역은 "Consumer Economics" "Consumer Affairs" "Consumer Education" "Consumer Resource Management" 등 유사한 명칭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명칭으로서 "Consumer Science"가 우세하다.

하나의 학문영역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研究對象과 이를 연구

할 수 있는 과학적인 研究方法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학문의 독자성은 對象보다 觀覺이나 目的, 方法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기영, 1989).

消費者學의 研究對象은 가계의 소득획득, 저축행동, 소비지출패턴, 자원관리, 생활수준 및 생활포준 / 소비자역할정립을 위한 소비자주권 및 소비자주의, 소비자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제도 / 소비자능력개발, 소비자유형별 특성과 문제, 소비자교육방안 / 소비자육구, 때도, 선호 등 소비자특성과 소비자행동 등이며 學際的인 접근방법이 소비자를 연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消費者研究의 目的은 소비자복지(개별소비자 및 가계)의 증진에 있으며 소비자의 포괄적인 역할 즉 자원획득자, 배분자, 구매자, 사용자로서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종합한 개념이 소비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학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초/응용 차원, 미시/거시 차원, 사적/공적 차원을 포괄하는 綜合的인 觀覺을 갖는다(Dunsing, 1982).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 방법, 목적이나 시각에서 볼 때 종합과학이며 응용과학인 가정학의 본질과 맥락을 같이 하므로 消費者學은 행정적인 근거를 경제학, 경영학 보다는 가정학에 두어야 한다.

家政學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는 철학을 갖는 학문이며 최근에는 家計가 소비자행동의 분석단위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Davis, 1976:Hansen, 1980). 그리고 가정학지도자들도 소비자분야를 중요한 연구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자 관련분야가 가정학의 중심이나 초점이라고 생각하는 가정학자들도 있다(Hastrop, 1977:Bennett, 1978). 이러한 사실은 가정학의 범위제시와 연구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학의 5가지 목표중 하나인 "소비자능력과 가족자원의 사용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있다.

가정학의 다른 4가지 목표중 "심리학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하는 조건의 향상"과

"생리적 건강과 발달에 기여하는 조건의 향상"이라는 목표도 소비자영역과 관련이 깊다. 즉 叢政學은 식품, 영양, 의류, 직물, 주택, 가구, 가정기기 등 많은 소비자 생산품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확립하고 연구업적을 축적했으며 이들을 소비자단위의 관점에서 발달시키었다. 그리고 각 개별상품영역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 상품들을 어떻게 조직, 결합해서 生活의 質을 높일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타학문분야(예;경영학)와 달리 구매후와 사용면까지 강조한다.

가정학에서는 소비과정 자체는 물론 소비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생태적 요인 및 소비와 결합된 가계생산활동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까지 포함한다(최은숙외,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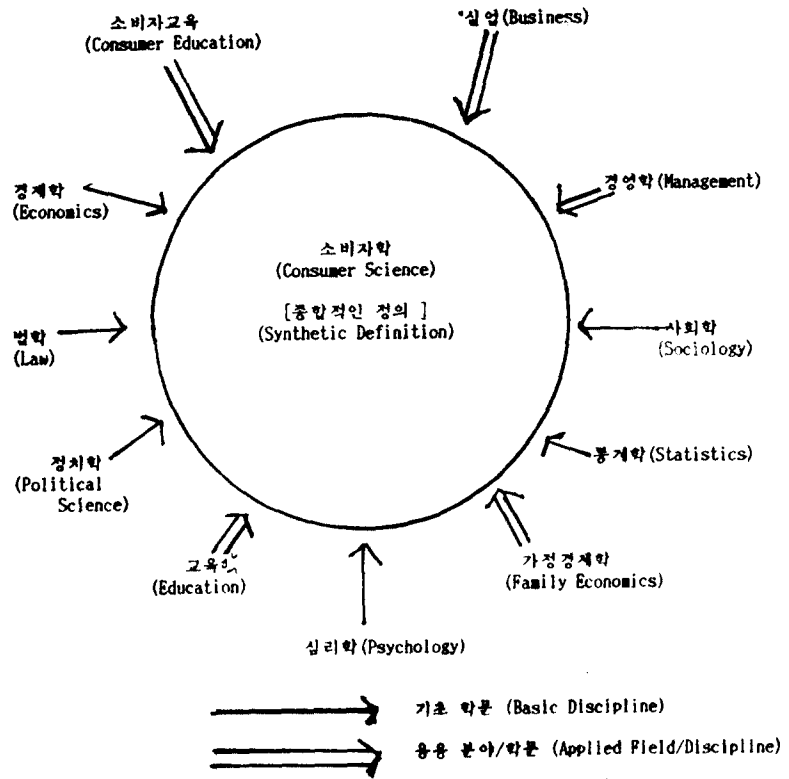
Dunsing(1982)은 CCFE 즉 소비자경제(Consumer Economics), 소비경제(Consumption Economics), 가정경제(Family Economics)를 가정학에서 소비자학분야를 대표하는 영역으로서 소비자학과 가장 유사하게 동일시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같이 가정학은 소비자영역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CCFE를 모두 포괄하며 소비자권익 및 복지에 일차적인 관심과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경제학, 경영학과는 다른 다른 獨自性을 갖는다.

Miller와 Goebel(1984)은 소비자학의 敎科內容은 응용연구분야와 기초학문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소비자학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학문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1>은 소비자학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학문분야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초학문분야와 응용학문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분야에서부터 소비자학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 및 연구영역들이 도출되어 소비자학이란 학문분야를 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1>



III. 消費者學의 社會的 奇與

금세기의 기술과 자연과학의 폭발적인 발전, 고도의 산업화과정은 인간의 생활을 물리적으로 편리하고 안락하게 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한편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 자원고갈, 환경파괴 및 오염, 윤리문제, 빈곤문제, 소비자문제, 노인문제 등 심각한 가정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일본가정학회에서 편찬한 家政學將來構想(1984)에서 '가정학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인간생활에 있어서 인적

물적 양면에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연구에서 생활의 향상과 함께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實踐的 綜合科學이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이기열, 1989) 가정학은 사회에의 공헌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학의 사회적 기여의 질적 양적 확대가 시급하며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는 더욱 사회적 기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Stampfl(1978)은 소비사회가 과거의 풍요상태로부터 저성장과 자원고갈을 고려해야 하는 소비사회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후기산업사회에서는 消費者主義(Consumerism)를 중심가치로 수용하며 소비자윤리와 책임있는 소비를 중요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미래산업사회에서는 소비자관련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消費者學이 현재 및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를 몇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소비자학전공자는 産業部門에서 소비자업무전문가(Consumer affairs specialist), 소비자정보전문가(Consumer information specialist)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기업체의 소비자상담실은 물론이며 기획실, 홍보실의 업무를 통해서도 기업과 소비자의 중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불평조정, 불량품교환 및 피해보상 등의 소비자상담, 소비자정보의 보급, 소비자교육 등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시장조사, 상품표시 및 광고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의 판매전략, 새로운 제품의 개발 등 기업발전을 위해 使用者의 觀覺(User's perspectives)에서의 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Stampfl, 1978).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진척되고 있는 HEIB의 역할과도 상통한다.

미래에는 소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등) 금융 보험기관, 마케팅리서치회사 등 모든 기업체에서 이러한 소비자

업무전문가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로 소비자학전공자는 行政 및 公共政策부분에서 소비자보호전문가(Consumer protection specialist), 소비자교육전문가(Consumer education specialist)로서 기여할 수 있다. 즉 보사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문교부 등의 행정요원으로 소비자관련업무에 종사할뿐 아니라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직접 간접으로 공헌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 같은 특수법인단체는 바로 소비자학전공자들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소비자조사부, 교육홍보부, 정책연구부, 분쟁조정부)들로 조직되어 있다.

Hayes(1989)도 소비자연구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공헌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敎育 및 社會서비스部門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소비자교육자, 소비생활상담사, 개인이나 가계의 재정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가계재정상담사(Family financial counselor), 민간소비자단체의 연구원 또는 소비자업무요원(Consumer affairs officer),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의 생활과학부서 소비자담당기자 및 PD로서 전공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교육으로서 평생교육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가정경제, 생활경제, 소비자교육, 가계재정과 투자, 재산관리 등이 주요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위의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소비자학전공분야 이외의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분야에서도 소비자관련 교과과정을 이수하므로써 HEIB로 양성될 수 있다. HEIB는 소비생활문제에 능통한 가정학사로서의 식 주생활 관련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 종사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다리와 같은 중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美國과 日本에서는 家政學의 專門性을 살린 취업분야로서 HEIB가 활발하게 개척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다. 가정학교육과

취업방안을 연구한 한상순(1989)은 가정학자들이 HEIB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취업창구의 개척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IV. 結語

오늘날의 기술혁신이나 사회변혁의 물결속에서 가정학이 생활의 질적 향상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학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문영역별로 細分化되고 專門性이 강조되어야 하는 한편, 綜合的인 視覺을 바탕으로한 생활문제 중심의 다양한 공동연구가 권장되어야 하며, 가정학졸업자들의 새로이 전문화된 취업확대를 실현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의 사회는 生活의 質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갖는 전문가를 요구하는 복잡한 사회가 될 것이며 소비자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학문영역이다.

소비자문제는 使用者의 視覺이 적용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될 수 없으며 家政學者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使用者視覺을 통해서 사회경제시스템이 미래사회에 적용되도록 도울 수 있고 가계와 개별소비자가 새로운 사용자자세를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人的資源이다.

가정학에서 소비자관련전문가들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져서 기초/응용, 미시/거시, 사적/공적 차원의 소비자관련이론과 실제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消費者學은 소비자의 권익 내지는 소비자복지에 초점을 두는 학문영역으로서 일정한 假定을 전제로 한 경제학이나, 기업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경영학보다 가정학에 행정적인 소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학연구를 위해서는 경제학, 경영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정치

학의 기초가 필요하며 학제적인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

消費者學은 이를 전공한 졸업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무대가 대단히 폭넓으며 취업확대가 실현성이 높은 학문영역으로서 가정대학내에서 하나의 독립학과로 설치되는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의 식 주 관련학과에서도 교과과정의 소비자관련분야를 도입하여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HEIB를 배출하므로써 변화하는 산업사회 및 후기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消費者學은 가정학의 정의와 목적에 부합해서 학문적 전문성의 확립과 사회적 기여라는 두가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영역이며 학문의 발전적 추세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가정학영역중의 하나이다.

참 고 문 헌

1. 이기엽, 가정학본질의 재조명, 대한가정학회 총회 발표논문, 1989
2. 이기영, 가정학의 사회적 기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지, 1989.
3. 이기춘, 소비자교육학, 교문사, 1988.
4. ———,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5. 최은숙 이기춘 박명희 김기옥 윤정애, 소비자학의 성립과 연구영역, 한국소비자연구회 창립총회 발표논문, 1989.
6. 한상순, 가정학교육과 취업방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2호, 1989. 163-185.
7.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Home Economics - New Direction II"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7 (1975), 26-27.
8. Bennet, R. "What is Home Economics ?"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67 (1975), 26-27.
9. Burton John R. "Consumer Career : Past, Present, and Proposals for the future." In Consumer Science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Invitational Symposium, edited by R.W. Stampfl. 1982. 131-136.
10. Churaman, Charlotte V. "PMMP : A New Tool for Teachers and Counselors." Advancing the Consumer Interest, A publication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Vol.1, No.1. 1989. 14-18.

11. Compton Norman H. "Why should anyone hire a Consumer Science Graduate?"
In Consumer Science i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Invitational Symposium, edited by R.W. Stampfl. 1982. 137-144.
12. Davis, H.L. "Decision Making within the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 (1976), 246-260.
13. Dunsing Marilyn M. "Consumer Science : A Home Economist's View." In Consumer Science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Proceedings of the National Invitational Symposium. 1982. 49-57.
14. Hansen, J. W. "A Proposed Paradigm for Consumer Product Disposit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14 (1980), 46-47.
15. Hastrop, K."Bridging the Gap—the Role of the Professional Home Economis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1(1977),93-100
16. Hays, Rader."The Integration of Consumer Research and Consumer Education"
Advancing the Consumer Interest, A publication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Vol. 1, No.1 (1989), 6-11.
17. Kroll R.J. & Hunt S.D. "Consumer-Interest Study in Higher Education : A Conceptual Analysis of an Emerging Discipline"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14, No.2 (1980), 267-287.
18. Miller, Nancy H. & Goebel, Karen P. "Concepts Fundamental to the Consumer Science Field." Proceedings of the 30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Consumer Interest, 1984. 316-320.
19. Stampfl, Ronald W. "The Post Industrial Consumer."Journal of Home Economics Vol.70 (1978), 25-28.

가정학적 아동, 가정학의 문제와 전망

한 남 대 학 교
박 영 애

1. 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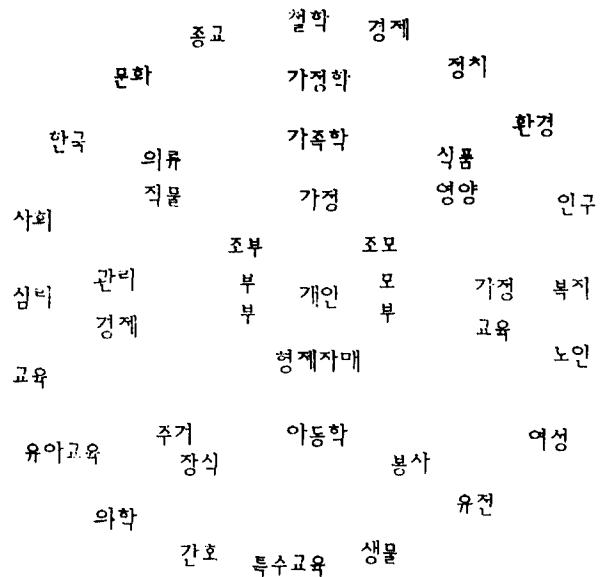
근래에 와서 가정학의 본질과 사명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재조명 해보고 그 학문적, 직업적 실체를 규명해 보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가정학과의 만남 이후로 줄곧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자리해 왔던 물음에 대한 보다 명료하고 긍정적인 어떤 해답을 구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다시한번 표출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가족학의 목표와 고유성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 가정학의 본질은 가족과 가정생활에서 찾아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복지이다. VS 탈 가정을 시도해야 하며 가족복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유영역은 연구대상과 목적에서 구한다 VS 가정학의 독자성은 중복되지 않는 연구문제나 대상자체 보다는 목적, 방법 및 시각에 있다; 학문적 연구는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VS 가정학은 가치창출과 의식선도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이와같은 미묘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정학의 특성은 통합성(종합적, 총체적, 협동적, 절충적), 실천성(실용성, 환원성) 및 적응성(대응성, 융통성)이다.

아동·가족학에서도 이와같은 가정학의 철학과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가정학이 궁극적으로 개인과 가정의 복지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하며, 다른 가정학내 영역들이 인간과 직결된 물리적, 인공적 환경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 아동·가족학은 바로 그 복지실현의 주체이자 수혜대상 자체인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다를 것이다. 생물학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행동 그리고 그 발달과정과 상호작용에 관한 이해는 개인과 가족의 자기관리능력과 적응력 강화, 그리고 그들의 복지실현을 추구하는 가정학의 노력에 기본적인 이해의 틀과 접근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2. 가정학적 아동·가족학의 개념

학문은 연구자 자신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활동하느냐에 의해 그 실체를 형성해간다. 종합성추구와 횡적 유대강화라는 가정학의 속성을 중시하며 아동·가족학도 대립적 또는 수평적 구도에서 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한 동심원적 구도속에서 다른 분야들과 하나가 될수있는 주체적이고도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아동·가족학자는 다음과 같은 network 속에서 자신의 연구영역을 찾아야 할것이다.



3. 연구 활동

대한가정학회지 (창간호 - 현재) 의 논문들중 아동가족분야의 비율은 전체의 15.4% (아동 9.2 , 가족6.2) 로서, 1983년 집계인 24.4% 보다 다소 낮아졌다. 1978년 (38%)을 정점으로 그 이전은 점진적인 증가를 보였고 80년대 초의 격감이후 현재까지는 평균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아동가족 분야는 졸업생 수에 비해 인구는 많이 많은 편이었고 (졸업생 비율 2%일때 논문비율 24.4%)¹ 미국과 달리 의식분야 다음으로 연구가 활발한 분야인 만큼 (미국은 의,식 다음이 가정교육분야²) 그와같은 논문발표율 저하는 아동학회지의 발간과 무관하지 않을 듯 하다.

연구주제별 분석을 해보면, 꾸준히 관심을 끄는 주제는 부모자녀관계, 아동의 성격발달, 그리고 인지발달로써 이들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아기와 유아교육에 초점을 둔 것이 15%정도, 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약8%정도, 특수문제연구가 약4%, 비교문화연구가 10%, 동양적, 전통적, 한국적 주제가 약 2%, 문헌고찰이 약4% 정도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가정학에 다른영역들과의 접합부위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미국 역시 부모자녀관계, 인성발달, 학아 및 영유아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화연구는 주로 인지영역에서 시작되었다.³ 대상은 최학전 연령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 신생아와 태내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분야의 주제를 보면 (대한가정학회지 창간호 - 현재) 그 구성이 부부관계가 23%, 노인문제가 11%, 가치나 의식조사가 11%, 부모자녀관계 7%, 고부관계 5%, 취업주부가족이 5%로 나타났고 그외에 전반적인 가족관계, 지역별가족특성, 가족계획, 의사결정, 특수가정, 가족문제, 여성문제 등이 있었다. 양적으로는 매 10년마다 3배가까이 증가했고 주제는 70년대에는 가치관이나 의식조사, 80년대에는 부부관계, 노인문제, 취업주부가정이 큰 증가를 보였다.

자격은 구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갱신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재교육이 따라야 한다. 일하는 분야가 전공 또는 그에 연계된 분야일 때는 현지경험과 아울러 특정시간에 상당하는 재교육을 받으면 대학원 졸업과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든가 해서 재교육액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듯하다.

5. 사회 봉사 활동

봉사는 그 대상과 방법에 있어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도록 해야하며 (client-oriented) 그들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 신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양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변화와 적응을 거듭해가는 개인들과 가족들이 우리의 연구, 교육, 봉사의 대상임을 명심하고 학문의 기본정신은 보유하되 내용은 늘 새롭게 하여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봉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스스로가 개척해야 한다. 아동·가족학의 가능한 진출분야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학부설 또는 공.사립 아동보호교육시설, 가족문제 상담소, 발달진단.검사기관, 연구개발기관 (제품, 프로그램, 교재교구), 사회교육원, 실험.평가.표준화기구 (놀이기구, 교재교구), 매스컴, 특수가정지원시설 (빈곤, 십대부모, 노인, 장애인) 정책분석, 자문기구(복지정책, 교육제도, 가족계획사업),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 각종 학원의 상담, 지도사, 탁아사 (가정탁아, 방문탁아), 놀이지도사, 각종 관련연구소, 정부나 공공기관의 아동.가족주무부서,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원 등이다. 학원의 상담지도사는 영양사 처럼 자격증이 부여됨은 물론 학원인가의 법적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겠고, 탁아사나 놀이지도사는 예능계 출신자들의 개인교수와 비슷한 형태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시설이나 직종들은 그 일선인력으로 대학이상 졸업의 유휴전문인력을 흡수, 조직화하여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력과 활성화 방안을 세밀히 검토해 볼만하다. 진로개척과 영역확보, 그리고 전문가로의 발돋움은 우리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의 산물이다. 객관적 평가못지 않게 주관적 의식도 중요하다. 가정학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자체는 전문직이라고 믿으나 세부적 내용과 활동으로 들어가면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¹³ 그냥 지나칠수 없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자 고민이기도 하다. 남을 설득시키려 하기전에 스스로를 확신시키고 적극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할것이다.

6. 전망 및 제언

21C 미국은 대체로 인구증가, 초혼지연 (부모와의 동거연장), 자녀출산지연, 무자녀증가, 여성취업증가, 이혼율안정 (현재가 50%), 재혼율증가 (75% 선으로), 혼합가족 증가, 십대부모증가, 남녀차별 존속, 고도의 정보의존성 등이 관찰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불행히도 당분간은 한국도 유사한 방향을 취할것으로 전망된다.

1) 연구

위와같은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다양성을 원칙으로 수용하게 할것이다. 따라서 아동·가족 연구도 전통적인

양친가족구조 내에서 자녀양육이나 구조기능주의적인 전통적 가족개념에 근거한 가족관계,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축면만의 연구에서 비전통적 가족구조와 비표준적인 문제 영역에 까지 관심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의 역동성과 상호성을 중시하여 다차원적 개념들이 연구될 것이고 일방적 또는 부분적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상호적, 다차원적 모델들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연주의적 연구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¹⁵. 자연관찰법의 장점을 알면서도 실험설계 쪽으로 기울는 경향은 그쪽이 최적인 연구방법이라 서기 보다는 보다 "실패할만한 과학자" 가 되려는 동기가 큰 탓이라는 지적¹⁶ 은 자료처리의 통계적 유행성이 본질에의 접근이나 정확한 실태 파악 보다 우선되는 것의 잘못을 지적한¹⁷ 것과 아울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발달을 일생에 걸친 과정으로 개념화시키는 경향이 교육과정의 명칭변경이나 연구내용 및 대상 연명 범위의 확대로 구체화되고 있다. 발달연구도 그 필수변인이 시간임을 상기하여 다양한 연명집단과 일생에 걸친 일관성과 변이성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취업가정, 노부모와 아버지의 역할, 도태집단의 힘, 중년기와 노년기 가족, 은퇴, 소(무)자녀화와 자녀의 가치, 가족계획과 아동발달, 컴퓨터의 역할과 영향등의 문제들이 거듭 다루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연구영역 개척과 과감한 연구시설확충,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2) 교육

학문적 발전과 교육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과에서 분리되어야 하므로 아동·가족학과의 증설이 우선 시급하다. 타학문 분야의 기존학과들과 학문적으로나 사회봉사면에서 어떻게 본질적으로다른가 하는 가정학적 전당성을 납득시키고 본리의 당위성을 주장해야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학문을 균형과 성숙의 경지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정학도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학문으로 안주하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가족형성과 자녀출산 및 양육은 여성단독 행위가 아니며, 남녀 불문하고 자립적 생활 주체로서의 생활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해결 집단으로서의 가정학 전공자의 인적구성을 보다 다양화, 현실화 하기위해서도 남성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본래 가정학은 그 주체도 객체도 여성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후진성을 면하려면 이제 컴퓨터의 이해와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교육분야의 ERIC 처럼 가정학 전공자의 자기평가와 직업분야 탐색을 위한 software 인 CHECK (Computerized Home Economics Career Kaleidoscope)¹⁸ 라든가 가정학에서사용가능한 21종의 software 들 (SOCIAL SCISEARCH, PsycINFO MEDLINE, FAMILY RESOURCES 등¹⁹) 에 상응하는 정보시스템들의 국내출현도 기대해 볼만하다. 컴퓨터의 생활화가 아동가족연구에 가지를 변화라든가¹⁷ 인간과 컴퓨터의 사회적 상호작용²⁰ 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봉사

취업여성과 탁아사업, 수요자 중심의 부모교육, 청소년문제와 성교육, 성인자녀와 노인세대 사이에 끼인 중간세대의 문제와 성인교육의 중요성, 노인문제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면서²¹그들을 위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신속성, 반응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상태의 유지보다는 새로운 영역확장과 아울러 다면화와 다차원화가 기대되며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평가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AHEA30주년을 맞으면서 미래가정학의 교육과 사회봉사는 이제 과거처럼 최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보존과 최적화에 있어야 한다는 전망²²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있다.

가정학은 전문분야이나 가족은 전문화된 기관이 아닌만큼 정보를 바르게 사용할수도 잘못 사용할수도 있으므로 가족을 상대로 하는 가정학의 교육과 봉사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인도주의적인 세심한 배려와 아울러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것이다.

참 고 문 헌

1. 문수재, 이기열, 한국 가정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가학 22권 3호, 1984
2. Goldsmith, E.B.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HERJ, 1983, 11(3), 207-213
3. Dickerscheid, J.D.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 Home Economics : state of the Art. HERJ, 1984, 12(3), 363-380
4. Rees, J. Ezll, M., firebaugh, F. Careers for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JH, 1988, 80(2), 30-32
5. Harper, L.J., Davis S.L. Home Economics in Higher Education, 1968-1982 : Analysis and Trends. JH, 1986, 78(2), 6-17
6. Gentzler, y.S. Certification: The Credentialed professional. JH, 1989, 81(2), 56
7. Spodek, B.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한국아동학회 유아교육연구회 공동학술심포지움 1989, 79-92
8. Cowan, D.L. Zbaracki, J.U. A case for Accreditation: concepts, Not Courses. JH, 1989, 81(2) 46-53
9. 이희자, 정영숙. 아동, 가족학 분야의 전문성과 영역. 대가학 25권 4호, 1987
10. 이기영, 가정학의 사회적 기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창립20주년 기념 시포지움, 1989
11. Olsen, D., Zigler. 1989. Weikart 1989
12. Durrett, M.E., Richards, P. computer-Based Simulation for observing child Behavior. HERJ, 1976, 5(2), 88-91
13. Amos, R.J., Nelson, H.Y. Attitudinal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in home Economics Teaching. HERJ, 1979, 8(1), 37-48
14. Nickols, S.V. 1988 AHEA Commemorative lecture Families : Diverse But Enduring. J H, 1988, 80(3), 49-57

- Green, K.B. The Future of Home Economics in Higher Education. J H, 1989, 81(1), 43-49
15. Williams, E.P., Alexander, J.L. 1982
16. 본 참고문헌 3과 동일
17. 조복희, 아동·가족학 연구의 새로운 시도. 대가학 24권 2호, 1986
18. Jolly, L.D., Daughety, R.A., Meszaros, P.S. C.H.E.C.K.ing into Home Economics Careers: A Computer Approach. J H, 1989, 81(2), 15-19
19. Brooks, A., Touliatos, J. Computer Searches : A Guid for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J H. 1989, 81(2), 23-26
20. Feinberg, R A., Walton, K.M. The Computers Are Coming The Computers Are Coming : A study of Human-Computer Social Interaction. HERJ, 1983, 11(4)
21. Wise, G.W., Murry, V.M. The Empty nest : The Silent Invasion on Two Fronts. JH, 1987, 79(1), 49-53
- Seitz, V. Accommodationg Adult Learners: Distance Education in Home Economics. JH, 1988 80(2), 42-44
22. Sumner, S.K. Terspectives on the Future of Extension. J H, 1989, 81(1), 9-12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문제점

문교부 자연과학편수관실

李 琦 勳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은 19세기말 여자에게 학교교육이 실시된 최초부터 시작되어, 그 주된 목표와 내용의 변화는 있었으나, 계속하여 여성교육의 주요 위치를 점해 왔고, 오늘날에는 사회변화와 가정과 교육의 성격으로 볼 때, 남녀 학생이 성차 없이 공히 이수할 필요가 있는 과목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정과 교육은 교육정책 입안 과정이나 교육 현장에서 타교과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심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그 성격과 존속 자체에 대한 이의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걱정하여 대한 가정학회나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 서울 중등 가정교육 연구회 등을 비롯하여, 많은 관련 학자와 교육 실무자들이 이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재 가정과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간의 교육과정이나 문교행정과 함께 모학문인 가정학의 성격 정립의 결함 등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진단을 빌어, 이를 중심으로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상기해 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

(1)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정 교과가 아직도 실업·가정 교과에 속한 과목 수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가정과 교육이 여성을 대상으로, 집안일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남자들의 농업, 공업, 상업 등 밖의 일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 교육에 대응하여 시작된 것이 연장되어, 광복 후에 교육과정이 정립되면서, 가정과 실업 교과는 각각의 성격보다는 성별로 동시에 실시할 방편으로, 실업·가정이라는, 나란히 연결시키는 고리를 가진 역지의 명칭으로 묶여 버렸다. 이 두 교과를 목표나 성격상의 일치 때문에 묶어서 명칭을 붙였다면, 명칭이 당연히 지금과 달랐

는 결과를 가져오며, 학생들은 학습 동기가 유발되지 못하고, 학습의 결과가 산 지식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2. 문교행정과 관련된 문제

(1) 교육정책 입안 관련자들에게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입안 과정에 가정학 전공 인사가 참여되지 못하는 사례의 발생과 더불어, 교육정책 입안 관련자들에게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함으로 해서, 대단히 많은 중요한 문제점이 생겨난다. 교육과정에서 가정과의 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시간 배당이 계속 축소되며, 대학입시과목에서 필수과목인 가정이 빠지고 선택과목인 가사만이, 그것도 제 2외국어와의 선택과목으로 결정된 일이라든지, 교육전문직의 가정과 전공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일, 과학진흥정책에 밀려 가정과는 학교에서 실험·실습비의 확보가 어려운 점 등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고 더이상 문제가 많아지거나 심각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학문인 가정학의 성격 정립과 함께 가정학회 및 가정과 교육학회의 발전과 그 응집된 힘이, 그리고 가정교육 실무자들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 깊이 침투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의 가정학과들이 가정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문교부의 소극적 태도로 가정과 교사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과거에는 각대학 가정학과의 실제적인 교육 목적이 거의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 양성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던 것이 졸업생의 교사 임용 기회가 줄어들고, 가정학의 내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육 내용의 분화가 요청되어, 1965년경부터 가정학과가 가정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 양성 전문 기관이 배려되지 않고, 교사 양성을 가정대학에 편승한 결과, 한 전문 영역을 전공한 교사가 가정과 교사로 배출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가정과 교사의 근본적인 질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참작할 때 과거의 우수한 가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여튼 이 문제점은 오늘날 가정학의 성격과 국가, 사회적 요인들의 변화로, 가정과 교육이 가족 구성원인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적 성격이 강화됨으로 해서, 더이상 실업·가정 교과에 속하지 않고, 적어도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가정이 남녀 모두에게 필수 과목인 기본 교과가 될 수 있도록 그 당위성을 널리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2) 가정과에 배당된 시간이 교과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성취에 크게 부족하다.

실업·가정과의 시간 배당은 교육과정 개정때마다 축소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상 배당 시간 운영의 폭이 설정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위주 교육 풍토의 병폐와 함께 실제로 최저 시간만이 운영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 결과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가정과 교사의 수와 가정과 교육의 비중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과 함께 교과서에 의존한 주입식 교육으로 흐르고, 교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3) 지도 내용, 특히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 마치 가정대학 각학과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편집해 놓은 인상을 준다.

가정대학 각학과의 교육 목표는 어디까지나 전문인의 양성에 있지만,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생활인의 양성에 있으므로 앞으로 새롭게 가정을 꾸며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면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기르면 된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 내용의 구성은 가정대학 각학과의 구분 같이 의, 식, 주, 아동, 가정 관리 등으로 종적인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가정 생활”이라는 실체를 놓고, “가정”이 사회의 구성 단위라는 사회 현실감을 충분히 고려하여, 횡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지식의 수준도 현재 가정대학 각학과에서 다루는 기초 지식을 요약한 정도로 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들은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그 기본 구성이 중·고등학교간의 차이조차 크지 않아, 그 내용이 학교급별, 학년별로 연계가 부족하고 중복되

정과 교사 양성 기관이 모두 가정대학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가정학의 학문적 발전에 반하여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대학에 가정 교육학과가 따로 설치되면 인적, 물적 여건으로 볼 때, 가정과 교사 양성으로 보나 가정학과 가정과 교육과의 멀어질 수 없는 연계성으로 보나 바람직할 수 있으나, 현재 가정대학 내에는 가정 교육과의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3. 모학문인 가정학의 성격 정립과 관련된 문제

오늘날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은 그 성격이나 존속에 대해 외부로부터 이의와 도전을 받는 경우가 있다.

가정학은 주제 강연에서 재확인된 바와 같이 모든 학문 계열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고 그의 일부를 채택하므로, 내용이 깊지 않은 借用과 모방의 학문으로 인식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가정학은 성격상 고도의 실천적 응용 과학이므로, 타학문의 힘을 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학은 그 연구 대상이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는 점에서 타학문과 뚜렷이 구분되며, 가족의 행복의 유지와 증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분명해진다. 가정학이나 이를 모학문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의 성격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외부 관련자들에게 이것이 뚜렷이 인식될 때 중등학교의 가정과 교육은 그 중요성이 확실해질 것이다.

중등학교의 가정과 교육은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내·외적인 원인들과 그 상호작용이 누적되어 발생되고, 그 결과의 악순환으로 심화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묘안은 간단하게 제시될 수 없겠으나, 무엇보다도 모학문인 가정학과, 이를 토대로 하여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중요성을 외부 관련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편 현장 교육의 실무자들은 가정과에 대한 긍지와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부단히 연구하고 실력을 기르며, 문제점들에 대해 능동적 태도로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